

하이(Hi) Teen 공부합시다

EEZ (Exclusive Economic Zone) 란 무엇인가요?

# 우리나라가 주권을 행사할수 있는 해역

일본의 독도 인근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탐사를 둘러싼 양국간 갈등이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달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양국 외무차관 회담을 통해 문제를 봉합했지만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논란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국제수로기구에 독도 인근 해저에 대한 한국식 지명 등재를 시도하지 않고, 일본은 수로측정을 철회하는 쪽으로 양측은 이견을 조율했습니다. 일본의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수로 측량 시도로 인해 EEZ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EEZ란 무엇이고 현재 일본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 수로 측량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 1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을 말합니다.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에 대해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 해양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해양법상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타국 어선이 EEZ 안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나포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동해의 경우 수역 폭이 좁아 한국이 200해리를 그으면 인접국 영해는 물론 육지까지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경계선 확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빈번히 독도 문제로 일본과 마찰을 빚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 2 '독도분쟁'의 배경과 일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지난 달 중순께 일본 정부가 독도 부근 해역에서 수로측량을 벌이겠다고 측량선을 출항시키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일본의 EEZ 수로측량 시도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측량이 자국 EEZ 내의 조사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즉 한·일 간 EEZ 경계선이 울릉도와 독도 사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독도 바깥쪽에 해당하는 울릉도와 일본 오키섬 사이의 경계선을 우리측 EEZ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독도를 기점으로 오



한국의 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일본의 탐사계획으로 인해 양국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달 시민단체 회원들이 일본의 'EEZ 탐사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일장기를 불태우고 있다. /연합뉴스

##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영역

### "해저지명 등록" "수로탐사 강행" 韓·日 마찰

키섬과 중간섬을 경계선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당연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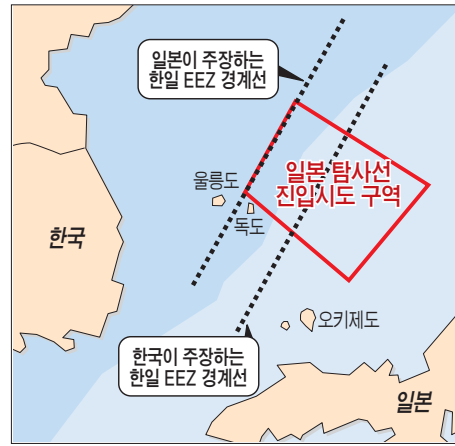
일본의 수로측량 시도 배경에는 독도 주변의 해저지명을 한국식으로 바꾸는 것을 막는다는 계산이 깔려있습니다. 독도 주변 수역은 한국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8년부터 국제수로기구(IHO)에서 '쓰시마분지', '순요분지' 등의 일본식 지명이 사용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자료정리를 통해 독도 주변 해저지명의 한국식 지명 등재를 추진해왔습니다.

또 일본의 수로측량 시도는 한국식 해저지명 변경을 막는다는 계산의 일환으로 이뤄졌습니다. 지난 달 21일 양국 차관회의를 앞두고 일본측이 18개 해저지명에 대한 한국식 표기를 추진하지 않을 경우 수로탐사를 포기하겠다고 제안한 데서 이 같은 의도가 드러납니다. 독도는 자국 영토이며 한·일

간 EEZ 경계선은 울릉도와 독도 사이라는 기준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행위입니다.

## 3 한·일회담 결과와 우리 측 대응은?

일본의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해양탐사 강행 의지로 고조된 양국 간 긴장이 한일외교 고심을 통해 극적으로 해소되었습니다. 일본은 한국 측의 독도 부근 해저지명에 대한 지명 등재를 연기한다는 조건으로 6월30일까지 예정된 수로 측량계획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측량 을 다시 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보였고, 한국 또한 6월로 예정된 국제수로기구(IHO)의 지명등록을 연기한 것 뿐이어서 이번 사태 종결이 미봉책에 불



과하다는 목소리로 나오고 있다.

일본은 27년 전인 1978년부터 독도 인근 해저 지명을 '쓰시마분지' 등 일본식 명칭을 등록,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2002년 해수부 산하 해양지명위원회를 만들고 지난해 11월에야 '울릉분지', '이사부해산'이라는 한국식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나마 오는 6월 국제수로기구(IHO)에 한국식 지명을 등록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한국지명 등록추진포기 = 일본 탐사선출항 포기'가 맞교환 카드로 거론되고 있어 이마저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삼십여 일본은 일본은 할리우드 영화 속에 PPL(영화속 간접홍보)기법을 동원해 일본해를 인식시키는 수법까지 동원함으로써 국제적인 우위를 확보했다고 판단, '동해/일본해'를 나란히 쓰자는 주장조차도 거부하고 있다.

## 4 일본이 독도를 탐내는 이유?

EEZ를 선포하려면 기점(base point, base line)을 자기 영토에서 잡아야 하는데, 일본이 독도를 기점으로 삼게 되면 200해리 영역이 훨씬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독도 인근해에 묻혀있는 천연 지하자원도 일본이 탐내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독도 남서해역을 포함한 동해 일대에 저온·고압에서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상태의 청정 에너지원인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6억톤 가량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주변에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고 있어 플랑크톤이 풍부한 황금 어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는 동해 해상교통로의 통제도 유리하고, 화산활동 등 한반도 생성과정을 연구하는 학술적 가치, 해저생물에 대한 생태적 연구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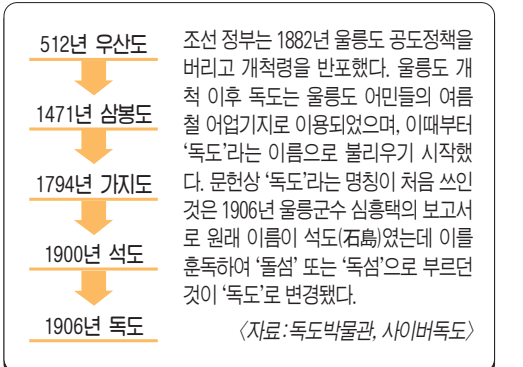
하이(Hi) Teen 공부합시다

일본이 독도를 탐내는 이유는 영청난 매장량의 천연 지하자원 때문

### ■ 역사 속의 독도

512년 (신라 지증왕 13)	신라 하슬라주(현재 강릉지역) 군주 이사부 우산국(울릉도) 정벌. '삼국사기'에는 우산국은 溟州 正東의 海島로 鬱陵島라 불리기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삼국유사'에는 같은 기사에 溟州(今作鬱陵)라 기록되어 있음. 독도, 한반도 역사로 편입, 신라 지증왕 13
1417년	울릉도 독도의 주민 거주 금함
1432년	세종실록지리지 편찬 "울릉도와 독도는 정동쪽 바다에 있는데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
1693년	인용복 1차 도일 (숙종실록)
1697년	대묘도에서 "라부가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다"고 일림
1785년	일본 하야시 시헤이, '삼국통람도설'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기
1876년	일본 해군, '조선통해안도'작성, 독도를 조선 영토로 표기. 일본 시마네현, 지도를 작성하면서 독도를 시마네현 지도에 포함시키려 할지 여부 내무성에 문의, 내무성, 독도는 조선 영토라고 결론
1877년	일본 국가 최고 기관인 태정관, 독도는 우리와 관계없다는 지령문 만들어 내무성으로 보냄.
1900년	울릉도 군수의 관할 구역으로 右廳(서도, 독도를 지칭) 포함시킴
1905년	일본 각의에서 "독도는 무인도로서 다케시마라고 칭하고 시마네현 관할 아래 둔다"고 일방적으로 결정, 이후 토지대장 등에 등재
1907년	울릉도 및 독도의 관할권이 강원도에서 경상도로 이속
1945년	광복 뒤 독도는 한국령으로서 일본의 어로제한선 바깥 지역으로 구분됨
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부, 독도를 한국 영토로 구분, 맥아더대원 통해 일본이 독도에서 고기잡이를 하지 말 것도 명시
1950년	연합군 '옛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 작성, 독도는 대한민국의 주권에 이양할 것 합의.
1952년	한국 정부, 독도영유권 재천명.
1956년	국립 경찰 독도경비인계
1954년	일본 정부, 독도문제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임 제의, 한국 정부 거부
1981년	울릉군 주민 최충덕씨, 최초로 독도에 주민등록 이전.
1982년	독도 일대를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
1987년	독도 최초의 주민 최충덕씨의 사위인 독도로 주민등록 이전, 최충덕씨 사망.
2000년	4.7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 변경 • 행정구역: 당초-도동리 -변경-독도리(서반-1반, 동도-2반) • 지 번: 당초-도동리 산42~76번지 -변경-독도리 산1~37번지
2003년	독도에 우편번호(799-805) 부여

### ■ 독도 지명의 변천



### ■ 독도

지리적 위치	울릉도 동남쪽 87.4km 떨어진 해상 (동경 131° 52' 08", 북위 37° 14' 22")
주소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
면적	전체면적은 180,902(동도 67,179㎡, 서도 95,008㎡, 부속도 15,907.5㎡)
구성	동도(東島)와 서도(西島) 및 그 주변에 산재하는 36개 비위섬으로 구성된 화산섬
소유자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침대**

시몬스 매트리스는 편안한 수면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다양한 크기와 두께의 매트리스를 제공합니다.

시몬스 매트리스의 장점:

- 편안하고 지지력 있는 매트리스
- 다양한 크기와 두께의 매트리스
- 시몬스 매트리스의 다양한 종류

시몬스 매트리스를 구매하시면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광주 전남 이용기능장 1호**

30만원부터 **가발** 시술 1천 정력의 최고실력자 이수재원장 직점시술원리

심는가발 탄생!!

이수재원장 직점 시술원리

대산가발남녀맞춤예술원

문의: 02-330-3300